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 개발전략 분석·평가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를 대상으로-

송 건 쇠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박 철 균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사를 실증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서 양제 보다 성공적인 관광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경주의 전통문화를 관광 상품화한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행사를 분석·평가하였다. 평가의 초점은 i) 문화행사에 대한 주민의 전반적인 인식, ii) 경제적인 효과, iii) 비경제적인 효과의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그 분석결과를 요약 하면, 엑스포행사를 통해 지방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된 점, 행사진행요원의 안내, 관광객을 행사과정에 참여시키게 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주민의 지원봉사, 참여,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엑스포행사가 지역에 미친 영향으로, 소득창출, 관광객 수의 증대, 문화인프라, 문화상품의 개발, 지역상품광고 등 경제적 효과와 지역홍보 및 이미지형성, 문화창조 및 향수, 지역민의 결속과 일체감 조성 등 비경제적 효과를 측정하였다.

I. 머리말

지방자치화가 본격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문화행사는 명목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이를 축제행사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여러 지역에서 시도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광주시의 비엔날레, 제주도의 쌀 축제, 강릉단오제, 춘천인형극제, 이천 도자기 축제, 금산 인삼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남도음식축제, 그리고 경주시의 문화엑스포 행사 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지역문화축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어떻게 판광상품화 시킬 것인지 전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문화축제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적합한 이론의 개발과 결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지역은 바로 경주이다. 경주는 신라 1,0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도로 한국문화유산의 20%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경주시가 1998년부터 세계문화엑스포를 격년제로 개최하기로 하고, 그 해 처음으로 행사를 치렀고, 또 2000년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의 성공을 위해 기획하고 있다. 따라서 '98년 세계문화엑스포 행사가 과연 지역문화정책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평가해 보는 것은 문화행사를 준비하는

다른 지방정부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본 논문은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의 보다 성공적인 관광개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검토, 현장조사 및 행사기간 중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다.

II. 지역문화행사와 관광개발

1. 지역문화와 지역발전

21세기에는 문화가 중심이 되는 시대라고 한다¹⁾. 이러한 현상은 벌써 오래 전에 나타난 것인데, '90년대부터 문화·예술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진행되어 왔다.

인간은 문화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²⁾. 인간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방식은 지역과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고, 또 지역과 지역주민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 생성된다. 지역문화란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생활양식과 사고체계이다. 이러한 지역문화는 지역주민들이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언어와 관습, 의식주, 축제와 놀이, 종교, 가족제도 등에 담겨 후손들에게 전승된다(문태현, 1999).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지역문화는 지역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다시 말해 지역발전은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지역은 그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됨을 말한다. 지역문화는 지역과 결합된 문화이며 단순히 공간상에 산재해 있는 문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의 숨결 속에 생동하는 문화가 지역문화이며 이것은 지역의식을 통합시키는 지역정신의 표출이며 지역적인 삶의 방식이 된다. 따라서 지역문화육성은 곧 지역의식을 통합시켜 지역민들의 활동에너지를 결합시키게 됨으로써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발전한다³⁾. 이와같이 볼 때 진정한 의미의 지역개발은 당해 지역의 문화개발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2.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문화행사

현대를 정보화 사회라고도 하며, 세계화·지방화·국제화 시대라고도 한다. 이러한 시대에는 국경이 제거되어 세계의 모든 문화들이 상호 칠후하드로 주체성이 없는 문화는 더 문화에 의해 흡수되거나 종속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김춘식, 1999). 그리고 세계화·정보화 사회에서 문

1) Huntington(1996)은 문화를 21세기 사회 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으로 인식한다. 그는 지금까지 사회변화는 정치·경제 패러다임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21세기는 문화·문화패러다임으로 디치될 것이라고 한다. 문태현(1999)도 세계변화를 설명하는데 문화야말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 문화라는 개념은 다의적이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집단의 생활양식 또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간에 찾아볼 수 있는 관습적인 행위 및 행위의 산물'이며, 이와 더불어 전통문화란 '옛날부터 전수되고 변형되고 또는 소멸된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이나 사회 구성원들간에 찾아볼 수 있는 관습적인 행위 및 행위의 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김춘식, 1999).

3)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지역문화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 지역문화의 창조력, 지역의 문화수요충족, 지역의 이미지 형성 등과 관련 지위 논의할 수 있다(문태현, 1998).

화는 상품화되어야 한다. 문화를 팔지 않으면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가 갖는 상대적 우위를 지킬 수도 없는 것이다(안문석, 1997).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지방화시대에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육성 및 문화행사의 개최 등이 필수적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문화의 전통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과 사고방식, 가치관 등이 획일주의적 성향을 탈피하여 개성적이 되고 지역에 대한 문화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둘째, 지역문화들간의 다양한 개성이 상호접촉 함으로써 문화적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문화전체의 성장·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를 다다의 개성이 뚜렷하고 다양할수록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문화항수권 시장을 통하여 지역간의 갈등해소와 함께 지역문화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이 증진되어 국민화합과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지역문화가 활성화됨으로써 지역 내에 가져온 산업·경제적 효과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지역문화가 상품화될 때 그에 따른 파급효과로서 지역사회와 활성화, 취업기회의 제공, 지방세원의 확충, 산업의 유치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문화행사의 지역관광효과

지역문화는 그 지역사회와 토양 속에서 오랫동안 성장 발전해 온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체취와 역경, 애환 등이 빠져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지역판이 갖게 되는 고유한 색깔과 것으로 나타나며, 이런 이를 흔히 향토색이라고 한다. 이러한 특색을 가진 지역문화는 그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

문태현(1998)은 지역문화행사의 효과는 크게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 것으로 나눈다. 첫째, 경제적인 기능으로, 지역문화를 문화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⁴⁾ 지역자치단체가 본격화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은 각자 독자적인 지역발전 전략을 강구하여 지역의 경쟁성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하나로 문화를 상품화하는 것이다. 지역문화는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소득효과, 고용창출효과, 부가가치창출효과 등에 있어서 탁월하다⁵⁾. 다음으로 지역문화는 지역산업의 인프라기능을 한다.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로·공항·항만 등 경제의 기반시설인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 튼튼한 인프라의 구축 없이는 지역의 경쟁력도 생산성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문화는 이미지 형성기능을 통하여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를 나타낸다. 지역이미지는 특정지역에 대한 인식의 총체로 이의 결정은 지역문화상품의 질, 애프터서비스, 주민의 친절도, 행정합리화, 지역사회에 대한 통사정신과 책임 등 다양하다.⁶⁾

4) 이 분야의 선구자로는 1966년 "Performing Arts : The Economic Dilemma"를 통하여 문화산업분야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 Baumol과 Bowen이다(문태현, 1999).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주로 종연예술과 예술단체 분석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일반적인 문화·예술에 관한 것은 소홀히 취급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Henderson, et.al., 1980).

5) 세계화추진위원회(1995)는 정보지식시대에는 문화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측되므로 문화산업은 성장산업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 이러한 문화시장의 잠재적 폭발성을 강화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저마다 문화시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각종전을 벌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6) 송희한(1997)은 지역문화는 지역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전통적으로 문화는 사치나 낭비로 생각되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정보지식시대에는 문화의 생산성기능에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의 생산성은 조직의 구조·기술·조직문화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조직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기술혁신과 리엔지니어링도 기업문화에 의해 좌우된다.

둘째, 비경제적인 것으로, 지역문화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주고⁷⁾, 주민들로 하여금 일체감을 갖게 하고 통합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 또 지역이미지를 형성하고 새로운 문화창조에 기여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 지역문화행사로서 지역축제⁸⁾와 이벤트(event), 엑스포(expo)의 지역관광효과는 대단히 크다⁹⁾. 박상수(1996)는 지역 경제적 효과와 지역 사회적 효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의학 가득의 효과, 대량 참가객 및 대량 관광객 유치효과, 고용유발 및 지역경제기반의 강화효과 등을 들 수 있다. 후자는 지역고유의 문화, 전통, 풍습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게 되는 등 민간고류의 효과와 홍보 및 선전효과, 지역주민들의 국제감각 교육효과 등 중요한 사회적 구심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효과라는 것이다.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면 지역발전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내 각 관련 분야의 세계화 내지는 국제화가 가능하고, 또 이들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자부심 및 의식수준의 향상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개요와 과정

1. 문화행사의 전반적 개요

1998년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개최된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48개국의 약 7,00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대회준비 및 행사운영상 다소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의 문화박람회라는 점과 국제적인 행사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행사를 위해 사용된 사업비는 정부지원이 150억 원, 지방충당액이 154억 원, 민자가 10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40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은 내국인이 293만 명, 외국인이 11만 명으로 총 304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일 평균 5만 명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1998). 관람객의 유치측면에서 보면, 타 지역에서 열린 각종 행사와 비교하면 대전엑스포 아래 최대의 행사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¹⁰⁾

7) 지역의 정체성이란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말하는데, 남원에는 춘향이의 특소리가 들리고, 안동에는 양반의 기침소리가 나며, 부여에는 삐체의 술결을 맡을 수 있고, 경주에는 천년고도로 신라인의 미소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의 정체성은 바로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토양이 바탕이 되어 형성된다.(문태현, 1998).

8) 문화체육부(1997)가 집계한 지역축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개최된 축제는 1996년을 기준으로 총 412건, 한국관광공사(1998)의 집계에 의하면 1998년 기준으로 총 480건의 지역축제가 열렸다. 여기서 1990년대에 신설된 축제는 255건으로 전체의 53.1%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 이후에 신설된 지역축제는 모두 166건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하였다. 가장 많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지역은 경남으로 전체 12.6%, 영남지방을 모두 합치면 전체 축제의 29.9%, 수도권 24.3%, 호남지방에서는 21.8%가 개최되었다.

9) 경북지역의 경우 관광상품개발이 활발하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비롯하여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봉화송이축제」 등의 엑스포와 축제행사를 비롯해, 유교문화이벤트, 가야문화이벤트, 해양이벤트, 수련이벤트, 향토특산물이벤트, 민속놀이이벤트 등의 각종 이벤트 행사가 계획 혹은 고려 중에 있고(서인원, 1997), 기타 국제회의 박람회, 전시회, 음악·미술·조각·연극·영화제·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90년대 이후 타지역에서 열린 각종 행사들의 방문객 현황을 보면, '95년 광주비엔날레: 160만명, '97년 광주비엔날레: 90만명, '97년 고양꽃박람회: 130만명, '97부산국제영화제: 22만명, '98년제주섬축제: 44만명, '97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10만 천명, '98년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10만5천명 등이다.

문화행사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전시(展示)와 영상(影像), 그리고 공연(公演)이다. 전시는 '미소'를 주제로 한 각 문명권의 유물과 영상과 결합한 세계문명관과 세계풍물관장이 있었으며, 북한의 고분벽화, 고서화 등을 전시한 북한관과 기획전시실 등의 전시관을 갖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영상은 테이저 특수효과, 퍼포먼스를 합한 걸티디렉션 기법의 영상소(걸티미디어 아트소, 주제영상)가 있었다. 그리고 공연으로는 22개국의 세계민속공연, 16개국 24경으로 구성된 인류화합음악축제 등의 국제공연단 공연과 서울예술단의 '천의 소리·춤'공연, 전라북도와 자매결연 축하 공연인 '서동요' 뮤지컬공연, 호남지역의 예술공연단 공연, 그리고 조선족으로 구성된 백두산소년예술단 등의 공연이 있었다. 한편, 공연장이 아닌 불국사 경내에서 공연된 야외오페라 '원효'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공연문화의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¹¹⁾

2. 문화행사의 수단과 내용, 예산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시설기반, 자료기반, 인력기반 그리고 제도기반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시설기반은 행사장이 보문단지내 한 곳에 위치해 관람객의 접근성과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총 관람객을 300만 명 일 최대 5만 명이 분산되어 입장할 것으로 판단, 3단계에 맞추어 설계한 것인데, 그러나 주말과 공휴일에 관람객이 7~8만 명에 육박하여 시설이 능력을 초과해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자료기반은 관람객이 행사장에서 즐길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크게 전시, 연행(演行), 영상, 그리고 학술회의 등 네 부분으로 나누었다. 인력기반으로서 외부전문가는 기획부문을, 공무원들은 행사의 운영과 행사장관리를 달당하였는데, 공무원들이 경험과 지식이 없어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제도기반은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총괄하였다.

<표 1>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수단

구 분	내 용
시설기반	위치 : 경주시 보문단지 부지 : 150,000평(전평:6,829평) 규모 : 일(日) 3만명 기준으로 설계
자료기반	불국사의 야외오페라, 세계민속공연, 개막식행사, 주제영상, 주제관 세계풍물관장 등
인력기반	사무처 직원의 수 :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총 57명 행사보조 : 경주시공무원 250명/유급도우미 : 80명, 자원봉사자
제도기반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사무차장, 행사기획실, 총무부 운영부, 홍보실, 기타 자문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자료: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1998.

엑스포행사가 문화를 주제로 한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루자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번 행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보면 <표 2>와 같다. 총사업비는 404억 원

11) 그 밖에도 10개국의 54명의 학자(외국 15명)들과 15개국 55명의 학생(외국 35명)들이 참가한 국제학술회의 등의 행사가 있었다.

이고 이중 시설비가 약 26%, 대행행사비가 약 47%, 그리고 법인운영비가 1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행사비는 10.7%에 불과하였다. 이는 경주문화엑스포가 다른 국제 행사에 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러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체행사비용이 적어 행사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

〈표 2〉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예산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항 목	총 사업비	'97			'98						민·자 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도 비	소계	도비	교부세	
계	40,420	10,420	5,000	5,420	20,000	7,000	13,000	5,000	3,000	5,000	10,000
법인운영	5,792	2,294	307	1,987	3,498	-	3,498	2,666	-	832	-
대행행사	18,957	7,376	4,593	2,783	11,581	5,600	5,981	1,362	2,057	2,562	-
자체행사	4,316	300	100	200	4,016	1,400	2,616	617	943	1,056	-
시설비	10,473	-	-	-	473	-	473	273	-	-	-
기 타	882	450	-	450	432	-	432	82	-	-	-

자료: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1998.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문태현(1998)과 박상수(1996)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친 파급효과를 경제적 측면과 비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경제적 효과는 다시 ①소득창출효과 ②관광객 증대효과 ③문화인프라효과 ④문화상품개발효과 ⑤지역상품광고효과로, 비경제적 효과는 다시 ①지역홍보효과 ②지역이미지형성효과 ③지역문화창조효과 ④문화향수효과 ⑤지역주민들의 결속력과 일체감 조성 효과로 나누어 분석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설계를 요약·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 3〉 문화행사 효과분석 틀12)

경제적 효과	비경제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창출효과 ·관광객 증대 효과 ·문화인프라 구축 효과 ·문화상품 개발 효과 ·지역 상품 광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홍보 효과 ·이미지형성 효과 ·문화창조 효과 ·문화향수 효과 ·지역민의 결속과 일체감 조성

12) 이러한 사례분석은 평가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가 된다. ①특제의 프로그래밍, 재정운영의 손익 결과를 주최측에서 분석하는 방식, ②축제를 서비스로 보는 관점에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③특제에 대한 평가를 방문객 조사를 통해 관광객유치효과를 측정하고 경제적 효과를 방문객들의 소비지출을 통하여 조사하는 방식 등이 있다(정강환, 1998). 본 연구에서는 엑스포 행사성과를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V.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한 분석·평가

1. 조사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기간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행사에 대한 기대와 실제 결과가 어떠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98년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달 간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과 텁행한 질문지조사방법(questionnaire method)을 이용하였다. 질문지는 총 650부를 배부하였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중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 한 605부를 최종 선별하여 통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속성	빈도	비율(%)	변수	속성	빈도	비율(%)
성별	남성	304	50.2	연령	10대 이하	54	8.9
	여성	301	49.8		20-29세	365	60.3
생활수준	상	28	3.8		30-39세	96	15.9
	중상	168	27.8		40-49세	54	8.9
	중	373	61.7		50-59세	27	4.5
	하	41	6.8		60세 이상	9	1.5
거주지역	경주지역	152	25.1	시민분류	중·고학생	54	8.9
	경주외지역	453	74.9		대학생	275	45.5
방문목적	경주관광	170	28.1		일반시민	218	36.0
	문화탐구	113	18.7		행사요원	60	9.6
	공연관람	164	27.1				
	기타	158	26.1				

먼저 성별을 보면, 남성이 304명 50.2%이고, 여성이 301명 49.8%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을 보면 10대 이하가 8.9%, 20대가 60.3%, 30대가 15.9%, 40세 이상이 14.9%로 20대의 대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을 분류하면 보면, 경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25.1%에 불과하고, 거의 74.9%가 경주이외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시민을 분류하면 학생(초·중·고·대학생)이 54.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일반인이 36.0%, 행사진행요원이 9.6%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은 상이 3.8%, 중상이 27.8%, 중이 61.7%, 하가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문목적은 경주관광이 28.1%이고, 문화탐구가 18.7%, 공연관람이 27.1%, 기타가 26.1%로 나타났다.

2. 문화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는 전 세계인을 겨냥한 문화축제였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그들 고유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문화적인 면에서 국가를 홍보하는 면에서 관광을 통해 많은 나라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엑스포 행사장 참가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일반관광객, 학생(중·고·대), 행사진행요원(직원·자원봉사자 등)이다. 이들 관광객에 따라 엑스포행사진행에 대한 평가가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에 따라 문화행사의 인식에 대한 설문은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분하여 체크하는 5점 릭커트 척도(5 point likert scal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표 5>에서 보면, 시민분류별로 문화행사인식에 대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i) 문화행사를 통해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일반관광객과 행사진행요원들은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한 반면, 학생관광객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F=3.348$, $p<.05$).

ii) 행사진행요원의 안내정도가 만족한가?에 대한 설문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특히 행사진행요원과 학생관광객이 일반관광객보다 만족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F=2.771$, $p<.05$).

iii) 경주시민의 자원봉사정도가 활발한가?에 대해선 행사진행요원과 일반관광객은 자원봉사를 활발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학생관광객은 자원봉사 정도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F=10.106$, $p<.05$).

iv) 문화행사에 주민의 참여정도는 만족할 만한가?에 대한 설문에서 학생과 일반관광객은 주민의 참여정도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나, 행사진행요원은 주민이 참여정도가 높다고 보고 있다($F=1.989$, $p>.05$).

v) 문화행사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는 어떠한가?에 대해 보통이하의 평가를 하고 있으므로, 관심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F=.222$, $p>.05$).

vi) 관람객을 문화행사에 참여시키는 정도는 활발한가?에 대해서는 행사주최측에서는 문화행사에 관람객을 참여유도가 높다고 보지만, 실제 관광객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F=4.306$, $p<.05$).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문화행사에 대해 공급자인 행사진행요원들은 '행사에 대한 관심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행사주요자인 학생과 일반관광객은 '행사진행요원의 안내정도'를 제외하고는 부정적이거나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행사를 바라보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점이 다소 상반되는 것은 행사를 잘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다소 미흡하거나 관광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표 5〉 시민분류별 문화행사 인식차이(N=605)

구 분		사례수	평균(M)	표준편차	F	유의 확률
문화행사를 통한 세계문화 이해 계기	학생관광객	329	2.98	.94	3.348	.036
	일반관광객	218	3.08	.86		
	행사진행요원	58	3.10	.83		
행사진행요원의 안내정도가 만족	학생관광객	329	3.36	.78	2.771	.050
	일반관광객	58	3.41	.89		
	행사진행요원	32	3.64	.72		
경주시민의 자원봉사정도 활발	학생관광객	329	2.88	.86	10.106	.000
	일반관광객	218	3.03	.90		
	행사진행요원	58	3.43	.84		
주민의 참여정도 만족	학생관광객	329	2.87	.81	1.989	.138
	일반관광객	218	2.91	.82		
	행사진행요원	58	3.10	.85		
문화행사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학생관광객	329	2.85	1.07	.222	.801
	일반관광객	218	2.90	1.13		
	행사진행요원	58	2.81	1.15		
관람객을 문화행사에 참여시키는 정도	학생관광객	329	2.95	.88	4.306	.014
	일반관광객	218	3.00	.90		
	행사진행요원	58	3.33	.93		

3. 경제적 효과분석

1) 소득창출효과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여 소득증대를 가져왔다. 소득 효과는 관광객 수와 직결된다. 경주문화 엑스포로 인한 총 관광 수입은 약 9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는 약 2,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결한 단체관람객을 비롯한 각종 단체관람객을 수송하기 위한 전세버스의 수입이 약 7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1998)¹³⁾.

실제로 경주엑스포의 관람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조사해 보면, 이러한 효과는 분명해 진다. 조사결과 응답자 19.3%가 '2만원 미만'을, 29.3%가 '2~5만원 미만'을, 29.6%가 '5~7만원 미만', 13.7%가 '7~10만원 미만'을, 8.1%가 '10만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치를 전체관람객을 곱하면 많은 소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엑스포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고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 보면 유의확률 p>.05이므로 지역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집단 모두 50%이상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경주지역의 거주자가 경주지역 거주자 보다 영향정도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것은 경주지역 거주자의 경우 기대한 것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3)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입장료 수입을 살펴보면, 원래 입장수입을 250억 원으로 기대하였으나, 200억원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무료 입장객과 단체할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표 6〉 거주지역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차이

구 분	매우미약	미약하다	보통이다	크다	매우크다	합 계
경주거주자	6(3.9)	24(15.8)	46(30.3)	64(42.1)	12(7.9)	152(25.1)
경주외 거주자	17(3.8)	64(14.1)	122(26.9)	195(43.0)	55(12.1)	458(74.9)
합 계	23(3.8)	88(14.5)	168(27.8)	259(42.8)	67(11.1)	605(100.0)

$\chi^2 = 2.559$ 자유도=4 유의성 = .634

2) 관광객수의 증대효과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는 경주지역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 수를 크게 증대시켰다. 행사 기간 중의 관람객 수는 조직위원회가 예상했던 300만을 넘어 304만 명에 이르렀다. '98년 9월 11일 개막 이후 입장객은 평일 하루 평균 4만명, 주말과 공휴일엔 9만 명이 행사장을 찾았다(대구매일신문, 1998. 9. 13)¹⁴⁾. 행사준비과정에서 IMF를 만나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입장객 숫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엑스포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일반관광객의 숫자에 비해 매우 빈약한데, 조직위원회 측이 발표한 공식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은 11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¹⁵⁾.

3) 문화인프라효과

세계문화행사와 같은 대규모 엑스포행사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훌륭한 문화시설과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된다. 우선 수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관광객들을 매표사킬 만한 충분한 복지리가 있어야 한다(문태현, 1998). 이를 위해서는 공연장, 전시장, 거리의 악자, 야외 조각 전시장, 박물관, 관광지 개발 등 문화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엑스포와 관련한 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자현황은 〈표 7〉와 같다. 우선 전체 사업량은 총 10건이며, 총 사업비는 520억원이 소요되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이 총 5개 노선에 372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기존 도로정비가 2건에 총 28억 원이 소요되었고, 실내체육관 건설에 총 39억 원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보문 행사장 앞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에 총 26억 원, 그리고 행사장 주변 상하수도 설치에 총 5억 원이 소요되었다. 결국 '98엑스포 행사를 위해 경주시의 인프라구축사업이 약 7년 정도 앞당겨졌다는 평가다. 엑스포 관련 기반시설사업 총 도로포장 예산은 원인원 약 25,000m²의 고용효과가 있었으며, 인건비도 약 215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다(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1998).

그러나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10건의 공사 중 지역업체가 시공한 것은 단 3건이며, 그

14)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짧은 준비기간과 IMF경제난으로 예산이 축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 속에 행사가 개최되었고, 개막 후 첫 휴일인 13일 6만 7천여 명의 관람객이 입장하는 등 개막 후 3일 동안 전체 관람객수가 16만여 명을 기록하는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더위 속에 줄을 지어 1시간 이상 관람 차례를 기다리던 일부 관람객들은 편함을 아예 포기하거나 환불을 요구, 행사장을 퇴장하면서 향후 재입장을 요구해 조직위측이 입장하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기도 하였다(중앙일보, 1998.9.13)

15) 그러나 홍보비를 약 28억 원(전체 예산의 약 7%)이나 지출하고도, 이번 엑스포행사를 찾은 외국인 내방객이 11만 명(전체관람객의 3.5%)정도 밖에 안되며, 그나마 학생 단체관람을 제외한 관람객들의 대부분이 대구·경북지역 거주자를 임을 감안할 때 홍보부족으로 인해 이번 행사가 안방잔치격인 성격을 엿볼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이시현의, 1998).

것도 1개 회사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하도급은 지역업체가 많았겠지만,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공사는 좀 더 많은 지역업체가 수주를 받았으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표 7〉 문화엑스포 관련 기반시설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종	사업비	시공업체(소재지)				
			계	국비	도비	지금비	
계	10건	52,000	5,050	4,160	42,790	-	
도로화 · 포장	소계	5개노선(27.45km)	37,200	2,050	3,660	31,490	-
	천문로	5.10km	13,500	1,450	-	12,050	유성건설(경주)
	브볼로	5.75km	15,200	-	3,060	12,140	성지(서울)학산(대구)
	천북로	5.50km	3,300	600	-	3,300	살보종합(강원)
	석불·장항	8.10km	1,700	-	600	500	동영로건(경북)
	서라벌대로	3.00km	3,500	-	-	3,500	청토건설(경북)
기준드 로정비	소계	2건	2,800	1,000	1,000	1,800	-
	포장도보수	53.10km	1,800	-	-	1,800	동산건설(서울)
	도로표지판	112개소	1,000	1,000	1,000	-	경복
실내체육관	부지44천 m ² 전평15,462m ²	8,900	2,000	2,000	6,400	-	공영트건(서울)
주차장설치	고속주차 91천 m ²	2,600	-	-	2,600	-	유성건설(경주)
상하수도	배수관 2.1km 오수관 0.7km	500	-	-	500	-	유성건설(경주)

자료: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1998.

4) 문화상품개발효과

엑스포행사는 문화상품개발에 절호의 기회였다. 수많은 관광객들을 위한 문화상품을 선보이기 위하여 공연단체나 문화상품제조자들은 그들의 자리를 총동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보인 문화상품은 Expo Package, 공예품, 기념품, 기타 각종 특산품이다.¹⁶⁾

경주문화엑스포가 경주지역에 미친 효과 중 숙박업체, 요식업체, 풍예품 판매업체 및 건설업체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숙박업의 경우 경주지역 5개 특급호텔(보문지역 4개소, 불국사지역 1개소)은 모두 행사기간인 9월~10월 사이에 최소한 10% 이상의 객실점유율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말인 경우 더욱 그려하다. 그러나 이렇게 투숙객이 증가한 것은 이 행사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 보다는 이 행사를 계기로 거의 모든 호텔들이 객실료를 평소보다 최고 40%이상까지 할인해 주는 등의 엑스포패키지(Expo Package)상품을 개발한 것이 주된 요인이 되었다.¹⁷⁾

16) 경주시에 치정된 특산품으로는 인연와당, 금환, 에밀페증, 은잔, 경주벌주, 고통벌주, 황금주, 황남빵, 블치젓 등이다(서인원, 1997).

17) 특히 현대호텔의 경우 세계민속공연단 등 세계각국에서 온 공연 팀들의 숙소를 이곳에 정할으로써 예년에 비해 50%이상의 객실점유율 신장을 기록함으로써 엑스포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불국사 지역에 있

엑스포 행사가 열린 보문지역 내에 입주한 요식업체 들의 경우 평소보다 이용객들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사장 인근에 위치한 업체들의 경우 관람객들은 물론 엑스포 행사관계자들의 수요까지 겹쳐 엑스포 특수를 누렸다. 그러나 보문행사장에서 다소 벗어난 요식업체 들은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경주시내 지역에 위치한 업체들의 경우 30-50%의 수요감소로 큰 타격을 입었다. 공예품의 경우 공예촌이나 시내지역에 위치한 업체들 모두 행사기간 중 50%이상의 매출감소를 기록했으며, 기타 대부분의 타업종 업체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엑스포 행사가 한 곳에서만 집중 개최함으로써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경주시내는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엑스포 행사장으로 갔다가 관람 후 곧바로 귀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행사가 야간공연 등 야간개장을 하지 않고 서둘러 폐장함으로써 경복인근이 아닌 타 시도로부터의 관람객을 유치하는데에도 실패한 셈이다.¹⁸⁾

경주문화엑스포가 문화행사인 만큼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각국의 문화상품의 구입과 상품의 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엑스포 행사기간 중 관광문화상품에 대한 방문객의 인식은 다소 부정적이다. 문화상품의 개발이나 상품의 질에 '보통 이하'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경주지역 거주자가 타 지역 방문객 보다 불만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경주시가 관광상품개발에 대하여는 다소 소홀히 했다는 점이며, 결국 이것은 행사준비기간이 짧고,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처 대비하지 못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표 8〉 거주지역별 관광상품에 대한 인식차이(N=605)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문화상품개발의 정도	경주지역거주	152	.2.63	.84	-.1.937 .050
	경주외지역거주	453	.2.78	.84	
문화상품 질에 대한 만족도	경주지역거주	152	.2.78	.76	-.1.729 .084
	경주외지역거주	453	.2.91	.75	

5) 지역상품 광고효과

경주문화엑스포 행사는 규모에 있어서나 선전매체 동원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이었다. 이 행사에는 대규모 홍보수단이 동원되었는데, 뉴스보도, 신문보도, 흥보풀, 환경기자단 설명회, 또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지사망을 통해 전세계에 알리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1개국의 방송국을 통해 95회에 걸쳐 경주와 문화엑스포에 관한 내용을 방영했다(이시영의, 1998). 이러한 홍보활동에 사용된 예산만도 약2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정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1998).

경주문화엑스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지역상품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는 여관들의 경우 행사기간 중 객실점유율이 다소 증가하였는데, 여관의 수요증이 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단체수학여행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다(이러한 현상은 엑스포 총 유료입장객수 252만명 중 50.1%에 달하는 126만명이 청소년과 어린이였다).

18) '99년 9월 개최예정인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의 경우 회장의 폐장시간이 평일이 22:00, 주말이나 휴일의 경우 22:30이며, 서틀버스를 평일 23:00, 주말 23:30까지 운영함으로써 야간개장과 아울러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계획하고 있다.

경주에 거주하는 주민은 '악하다'가 44.7%이고 '크다'가 19.1%로 나타났고, 경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인 경우 '악하다'가 28.9%이고, '크다'가 28.1%로, 지역상품을 홍보하는 효과가 미약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역사도시로서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많은 문화재가 있지만, 문화엑스포를 통하여 그러한 점은 부각되지 않고, 지나치게 홍미위주 및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무리한 진행 등이 그 해 지역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결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4. 비경제적 효과분석

경주문화엑스포 행사는 비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경주 이미지의 분야에서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지역 이미지 개선 혹은 지역을 널리 알리는 효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일체감 조성 등이다.

1) 지역홍보 및 이미지 형성효과

경주문화엑스포행사의 근본적 목표는 '한국의 우수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혹은 '외국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기 위하여'였고, 부제로는 동서문화의 전승·옹화·창조이다. 이에 맞추어 세계 43개국의 민속공연단체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지만, 다소 수준이 낮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행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제와 부제를 강조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오영석, 1998).

또한 경주가 세계적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고 인류문화의 산 교육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효과의 출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지역의 이미지가 예전에 비해 어느 정도 좋아졌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경주에 거주하는 주민은 자기지역 이미지에 대해 44.8%가 좋아졌다고 보는 반면, 경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관광객은 49.6%가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를 T검증에 의해 차이를 분석하면, 홍보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반면, 경주에 대한 이미지는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집단간의 차이를 보면 홍보활동은 경주지역 거주자가 더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경주지역 거주자가 더 만족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9〉 거주지역별 홍보활동 및 이미지 만족도 평가(N=605)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문화행사 홍보활동에 대한 만족도	경주지역거주	152	2.66	.92	-3.335 .001
	경주외지역거주	453	2.95	.90	
문화행사지인 경주에 대한 이미지 만족도	경주지역거주	152	3.28	.83	-2.119 .035
	경주외지역거주	453	3.24	.79	

2) 문화창조 효과

엑스포행사는 문화를 창조하는 효과를 가진다. 행사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지혜를 총동원함으로써 집약적인 문화창조 기능을 수행한다. 더구나 국제규모의 축제가 정착화되던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은 총동원된다. 따라서 해가 갈수록 성숙된 축제로 발전할 것임이 틀림없다.

현대 관광의 특성은 단순한 '문화관광'보다는 '문화기행'을 더 원한다. 보고, 사진 찍고 지나가는 관광보다는 체험하고 배우는 기행을 더 원하는 것이다(오영석, 1998). 따라서 사회구성원의 교육과 경제수준이 높아 갈에 따라 관광객들의 욕구수준도 높아 갈 것임이 틀림없다. 그럼으로 경주문화엑스포도 이러한 변화된 욕구에 부합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3) 문화향수 효과

엑스포 행사장은 주제관, 세계문명관, 우정관, 세계동물광장, 공연장 등을 배치하여 영상과 전시풀, 공연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주제관의 전시실에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들의 첨단작품을, 세계문명관에는 세계 4대 문명 및 마야·잉카·문명의 유들과 사진 자료 등을, 우정의 집은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참가국들의 전통 문물을 소개하는 전시관으로 이 중 북한관에는 고구려 유들과 고분·벽화, 산성 모형도가 전시되었다(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1998). 세계동물광장에는 세계각국의 전통 가옥과 민예품, 음식 등을 전시 또는 판매하고 전통 풍물이 공연되도록 시설을 배치하였다. 공연장에서는 어우러지는 다양한 공연예술이 펼쳐졌다. 이 밖에도 거리의 악사 등 거리공연과 각국의 전설, 동화 등을 바탕으로 한 꼭두ين형극, 전위예술 축제, 야외조각 전시장 등의 많은 볼거리 행사가 진행되어 문화의 향수를 느끼게 만든 것임에 틀림없다.

4) 지역민의 결속과 일체감 조성

경주문화엑스포는 국제적인 문화행사였다. 이러한 행사의 경우, 자치단체 및 몇몇 행사관계자들의 힘만으로는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자발적인 참여 등 주민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도움이 결국 지역주민을 하나로 묶고, 일체감을 형성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가 지역주민의 결속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설문에 대해, <표 10>에서 이를 거주지역별로 검토하여 보면, 경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도움 안됨'이라고 응답한 자는 38.8%인 반면, '도움됨'이라고 응답한 자는 16.5%에 불과하다. 그리고 경주의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 경우 '도움 안됨'이 28.5%이고, '도움됨'이 24.1%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간의 차이에 대해 $p<.05$ 이므로 거주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경주에 거주하는 자가 그렇지 않는 자보다 별로 도움이 안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주문화엑스포가 제공자 위주의 행사였다는 지적이 많다(오영석, 1998)¹⁹⁾. 이것은 경주문화엑스포 행사가 지역주민을 참가시켜 공동으로 행사진행을 유도하기보다는 자치단체 및 행사 주관 부서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만으로 보인다.

19) 한가지로 예로 행사기획과정에서부터 지역사회의 참여가 없었다. 엑스포가 경주시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 집행부, 의회, 지역전문가, 그리고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행사장 전물이 완성되기 이전에 조직위와 사무처가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주시가 아닌 대구시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표 10〉 거주지역별 지역주민의 결속과 일체감 조성

구 분	매우도움안됨	도움안될	그저그렇다	도움될	매우도움될	합 계
경주거주자	6(3.9)	53(34.9)	68(44.7)	24(15.8)	1 (.7)	152(25.1)
경주의 거주자	20(4.4)	109(24.1)	215(47.5)	94(20.8)	15(.3.3)	453(74.9)
합 계	26(4.8)	162(26.8)	283(46.8)	118(19.5)	16(2.6)	605(100.0)

$\chi^2 = 9.568$ 자유도=4 유의성= .046

5. 분석종합 : 문제점 및 향후 방향도출

이번 경주문화엑스포 행사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은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점과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미약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대구매일신문, 1998. 9. 14). 여기서는 특히 준비기간의 부족을 겸증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집단별로 분류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집단은 준비기간에 대해 '불충분하다'가 56.3%이고, '충분하다'가 7.0%에 불과하였다. 일반시민의 경우 '불충분하다'가 51.8%이고, '충분하다'가 13.3%이다. 그리고 행사진행요원의 경우 '불충분하다'가 53.4%이고, '충분하다'가 10.6%에 불과하였다. 이를 집단간의 차이를 겸증하여 보면 $\chi^2 = 24.001$ 이고, $p < .05$ 이므로 시민집단에 따라 준비기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함이 드러났다. 즉 대체로 행사준비기간이 불충분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학생과 행사진행요원의 준비기간의 불충분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더욱 강한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행사진행 중 시설공사의 진행, 휴식공간의 부족, 안내 표지판의 미비 등의 절(한국관광공사, 1998)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세계적인 문화행사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기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²⁰⁾

〈표 11〉 시민분류별 준비기간에 대한 견해

구 분	매우불충분	불충분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충분	합 계
학생관람객	39(11.9)	146(44.4)	121(36.8)	22(6.7)	1(.3)	329(54.4)
일반관람객	19(8.7)	94(43.1)	76(34.9)	25(11.5)	4(1.8)	218(36.0)
행사진행요원	13(22.4)	18(31.0)	15(25.9)	10(17.2)	2(3.4)	58(9.6)
합 계	71(11.7)	258(42.6)	212(35.0)	57(9.4)	7(1.2)	605(100.0)

$\chi^2 = 24.001$ 자유도=8 유의성= .002

한편 입장료의 다과드 행사참가자 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란 인식하에, 공연료를 포함한 입장료에 대한 견해를 시민집단별로 그 인식상의 차이를 겸증해 보았다. 학생들은 입장료에 대해 '부적정'이 52.6%이고, '적정'이 16.7%이다. 일반시민은 '부적정'이 39.9%이고, '적정'이 24.3%이다. 그리고 행사진행요원의 경우 '부적정'이 29.3%이고, '적정'이 32.7%로 나타났다.

20) 경상북도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엑스포에 대한 기본계획이 1996년 3월에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 3명의 준비기획단은 1996년 9월 중순에 구성되었으며, 재단법인문화엑스포는 등년 11월에 발족되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세계적인 행사를 준비하면서 2년여의 준비 기간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들 집단간의 차이에 대해 $\chi^2 = 21.048$ 이고, 유의확률 $p < .05$ 이므로 집단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이 일반시민과 행사진행요원들에 비해 입장료가 매우 비싼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같이 볼 때 학생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에 있어, 문화행사의 최대의 수요자로 남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닌다. 따라서 이를 계층의 폭넓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해 할인혜택, 저가로 공급가격을 낮춰 관람케 하는 등 대책의 강구가 요망된다.

〈표 12〉 시민분류별 입장료에 대한 견해

구 분	매우부적정	부적정	그저그렇다	적정	매우 적정	합계
학생관람객	33(10.0)	140(42.6)	101(30.7)	52(15.8)	2(.9)	329(54.4)
일반관람객	19(8.7)	68(31.2)	78(35.8)	50(22.9)	3(1.4)	218(36.0)
행사진행요원	4(6.9)	13(22.4)	22(37.9)	17(29.3)	2(3.4)	58(9.6)
합 계	56(9.3)	221(36.5)	201(33.2)	119(19.7)	7(1.5)	605(100.0)

$\chi^2 = 21.048$ 자유도=10 유의성 = .021

앞서 지적했듯이,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및 행사 주관 부서의 일방적인 행사진행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지역문화행사를 지역사회의 주민이 주도한다면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유도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수도 많았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시민집단을 분류하여 이들간의 인식차이를 결증해 본 결과, 학생집단은 자원봉사정도에 대해 '소극적이다'가 33.7%이고, '적극적이다'가 23.7%이다. 일반시민의 경우 '소극적이다'가 29.4%이고, '적극적이다'가 31.7%이다. 그리고 행사진행요원의 경우 '소극적이다'가 15.5%이고, '적극적이다'가 48.3%이다. 대체로 자원봉사정도가 적극적이기보다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진행요원들보다 일반주민이 인식하는 자원봉사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경주문화엑스포는 세계규모의 행사로 앞으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행사로 인해 가장 미흡한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에서 '각종편의시설 부족'이 51.4%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그 다음이 '이벤트행사부족'이 22.8%, '홍보부족'이 14.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시 행사준비기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행사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대해, '공연'이 44.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관람'으로 23.6%, '행사'가 13.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행사가 세계문화축제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의 고유한 전통의상과 민속춤 등을 동반한 공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13〉 가장 미흡한 점과 인상깊었던 점

가장 미흡한 점			가장 인상깊은 점		
답 항	번 도	비율(%)	답 항	번 도	비율(%)
홍보부족	85	14.0	자원봉사자의 친절	58	9.6
이벤트행사부족	138	22.8	공연	271	44.8
각종편의시설부족	311	51.4	관람	143	23.6
주차공간부족	49	8.1	행사	79	13.1
기 타	22	3.6	기타	54	8.0
계	605	100.0	합계	605	100.0

향후 2000년에 다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개최 및 세계적인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행사들이 기대이상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번 행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트대로 행사진행 방향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러한 방향 설정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관광기반·편의시설의 확대'가 34.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지역문화창출'로 20.8%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반시설 외에 세계적인 문화도서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종류의 출판물과 매체들의 구비,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극과 음악제 개최, 체험관광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창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표 14〉 향후 행사방향

구 분	번호	비율(%)
관광상품개발	91	15.0
지역문화창출	126	20.8
향토축제	80	13.2
예술공연확대	95	15.7
관광기반·편의시설 확대	211	34.9
기타	2	.3
합 계	605	100.0

V. 나누리

본 연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행사에 대한 방문객들의 인식을 조사·평가하고, 행사가 지역지역문화창출 및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미쳤는지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초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행사에 대한 주민의 인식, 경제적인 측면의 효과, 비경제적인 측면의 효과 등이다. 이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지역문화는 해당지역주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창출해야 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관심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못했는 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의 행사진행에서 많은 개선점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둘째, 경주문화엑스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소득창출효과, 관광객 증대효과, 지역상품판매 및 개발효과 등의 파급효과를 더해 지방경주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경주문화엑스포의 경제의적인 효과로 각종 문물과 민속물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나아가 경주의 문학적 상품개발과 소개로 알리암·역사·고도·경주의 찬모습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높여 문화창출에 참여케 하는 활동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준비기간의 부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부족, 미숙한 행사운영 등으로 앞으로 큰 과제를 남기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 200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에 대비, 금번 행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행사준비의 치밀함을 기해

야 함은 물론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보람있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관광기반 시설의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1998).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과」 (내부자료).
- 김정호. (1996). 유교문화권 개발과 관광산업 육성, 안동시·안동상공회의소 주최, 「유교문화권개발을 위한 시민 포럼」 : 22-23.
- 김춘식. (1999). 지역개발전략으로서 전통문화의 관광상품화, 대구·경북행정학회 '98년 동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 93-99.
- 남치호. (1998). 문화권 개발과 관광·문화산업 육성, 「대구경북개발연구」 제3호 : 27-47.
- 문태현. (1998). 지역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행정논집」, 제10권 제2호.
- 문태현. (1999). 글로벌화와 공공정책, 대명출판사 : 317-340.
- 문화체육부. (1997), 「한국의 지역축제」.
- 박상수. (1996). 지방축제와 이벤트, (사)지방행정연구소, 「자치행정」 제98호 : 17-18.
- 서인원. (1997). 21세기 경북 관광의 전망과 발전전략, 「대구경북개발연구」 제2호 : 25-51.
- 석영환. (1993). 우리나라 지방문화정책의 발전반향, 「입법조사월보」 9월호 : 39-41.
- 세계화추진위원회. (1995). 「1995년도 세계화추진 종합보고서」 : 543.
- 송희준. (1997). 문화투자의 경제적 효과, 「메세나」 11-12월호 : 24-25.
- 안문석. (1997). '21세기 문화사업을 육성하자', 「문화도시 문화복지」
- 오영석. (1998).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기획 및 정책과정 평가와 개선방향, 동국대학교 정책세미나 : 13-27.
- 오장환. (1999). 지역축제의 실제와 경제적 효과, 「관광학연구」 제22권 제3호(통권28호) : 203-221.
- 유진룡. (1988). 지방문화육성을 위한 문화정책 방향연구, 「예술과 행정」 제1호 : 32-34.
- 이시영·김상현. (1998).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경제성 평가, 동국대학교 정책세미나 : 101-109.
- 정강환. (1998). 문화관광축제로서 금산인삼제 행사평가 : 최근 3년간의 비교분석, 「관광학 연구」, 제22권 제2호 : 58-59.
- 한국관광공사. (1998). 「98국내 주요 이벤트」, 한국관광공사.
- Hendon, W. S. et. al., eds. (1980). *Economic Policy for the Arts*. Cambridge. MA: abt. Books
- Huntington, S. P. (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이희재 역. Seoul : Gumm-Young Co.

宋建燮: 경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감사원 감사판단기준의 변화과정과 방향, 1997), 현재 경북대·대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학문적 주요관심분야는 행정전산, 통계, 조사통계 등이며, 논문으로는 변화할당모형을 이용한 대구시 제조업 분석(1996), 감사원 감사판단기준의 변화특이 분석(1997), 지역사회의 치안수요요인에 관한 연구(1998), 성별과 억제정책의 영향평가(1998), 정부의 금융실명제 정책종결과정과 행정판료의 인식(1999) 등이 있다.

朴喆敏: 경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부경대·신라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학문적 주요관심분야는 정책분석, 복지행정, 지역개발 등이며, 논문으로는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분석·평가(1998), 지방정부 벤처산업 육성정책의 실태와 문제점(1998), 지방정부의 사회복지기능 분석실태(1998), 정책종결과정에 나타난 국회의 형태분석(1999), 지방정부 자치구 주민의 삶의 질 실태(1999) 등이 있다.